

## 경북 서부방언의 상대경어법

이 혁 화\*

I. 머리말	IV. 맺음말
II. 상대경어법 등분에 대한 쟁점	<참고문헌>
III. 상대경어법 등분에 따른 종결어미	<국문요약>

### I. 머리말

경북 지역 중에서 문경, 상주, 김천, 구미를 중심으로 하는 서부 지역은 비교적 이른 시기부터 경북 방언의 하위 방언권으로 구획되었다. 일찍이 천시권<sup>1)</sup>은 종결어미를 기준으로 하여 대구·경주 중심의 ‘-능교’형 지구(地區), 안동·의성 중심의 ‘-니껴’형 지구, 상주·선산 중심의 ‘-여’형 지구로 구분함으로써 경북의 서부지역을 독립된 소방언권으로 구획하였다. 이기백<sup>2)</sup> 역시 종결어미를 기준으로 하여 문경, 상주, 김천, 선산을 ‘제삼유형지역-중서부지역’으로 구획하였다. 음운, 문법, 어휘 세 측면을 모두 고려하여 경북의 방언구획을 시도한 최명옥<sup>3)</sup>에서도 일차적으로 경북의 서부 지역을 경북 서부방언이라 하여 독자적인 소방언권으로 구획하였다. 여기에서는 이들 지역의 방언을 경북 서부방언으로 부르기로 한다.

\* 서울대학교 기초교육원 전임대우강사, 국어학·방언학 전공(lhhjs@snu.ac.kr).

- 1) 천시권, 「경북지방의 방언 구획」, 『어문학』, 13(한국어문학회, 1965), 6-9쪽.
- 2) 이기백, 「경상북도의 방언 구획」, 『동서문화』, 3(계명대학교 동서문화연구소, 1969), 215-216쪽.
- 3) 최명옥, 「경상도의 방언구획 시론」, 『우리말의 연구』(우골담, 1994), 889-890쪽.

그러나 경북 서부방언의 상대경어법 등분 체계에 대해서는 논의된 바가 거의 없다. 상주와 문경 방언에 대해서는 몇몇 논의를 찾아볼 수 있지만<sup>4)</sup> 등분 체계가 각각 4분 체계(해라체, 하계체, 하소체, 해요체), 4분 체계(합소체, 하소체, 하계체, 해라체), 3분 체계(하대, 평대, 존대) 등으로 상이하고, 동일한 소방언권으로 묶이는 경북 서부방언을 종합적으로 고찰한 논의는 찾아보기 어렵다. 한편 국어 방언의 다양한 종결어미에 대해 상대경어법적 측면에서 논의를 종합한 이기갑<sup>5)</sup>에서는, “경북 방언이 삼 등분 체계라면 경남 방언은 사 등분 체계이기 때문이다. 경남 지역어에서는 ‘-소/요’가 따로 존재하는 반면, 경북 지역어에서는 ‘-소/요’에 의해 표현되는 하오체를 갖지 않는다”라고 함으로써, ‘-소/요’로 표현되는 하소체의 등분이 존재하는 경북 서부방언의 상대경어법적 특성은 3분 체계인 것으로 기술되는 여타의 경북 방언에<sup>6)</sup> 가려 적절한 평가를 받지 못하였다.

이 글은 종결어미를 중심으로 하여 문경, 상주, 김천, 구미 등의 지역에서 쓰이는 경북 서부방언의 상대경어법 등분 체계에 대해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먼저, 기존의 연구에서 문제가 되었던 쟁점 사항을 따로 정리하여 먼저 논의한다. 이어 각각의 등분 내에서 대표적인 종결어미 몇몇을 살펴본다. 논의 자료로는 『한국구비문학대계』 7-8(상주편), 7-15·16(구미·선산편)의 발화 자료를 이용한다.<sup>7)</sup>

- 4) 종결어미에 대한 연구 중 상주 방언에 대해서는 전인득, 「경북 상주방언의 활용어미 연구」, 영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1979); 문경 방언에 대해서는 조옥현, 「문경 방언 동사류의 형태론적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1993); 민원식, 「문경말의 어미구조에 대한 통시적 연구」, 충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1994)을 참조할 수 있다.
- 5) 이기갑, 『국어방언문법』(태학사, 2003), 255쪽.
- 6) 경북 방언을 중심으로 3분 체계를 설정한 논의들은 다음과 같다. 최명옥, 『경북동해안방언연구』(영남대학교 출판부, 1980)에서는 영해 방언을 대상으로 하여, 해라체, 하계체, 하소체의 3분 체계를, 이상규, 「경북 방언의 경어법」, 『새국어생활』 1-3(국립국어연구원, 1991)에서는 경북 방언 전체를 대상으로 ‘수상 존대’, ‘대등 존대, 수하 존대’, ‘수상 하대, 대등 하대, 수하 하대’의 3분 체계를, 김태열, 『경북말의 높임법 연구』(태학사, 1996)에서는 경북 포항 방언을 대상으로 ‘안높임법, 예사높임법, 아주높임법’의 3분 체계를, 임지룡, 「안동방언의 청자대우법」, 『방언학과 국어학』(태학사, 1998)에서는 안동 방언을 대상으로 ‘1단계, 2단계, 3단계’의 3분 체계를 설정하였다. 경상 방언 전체의 상대경어법 체계에 대해서는 정인상, 「동남방언」, 『문법 연구와 자료』(태학사, 1998); 이기갑, 앞의 책, 안귀남, 「방언에서의 청자존대법 연구」, 『국어학』 47(국어학회, 2006)을 참조할 수 있다.
- 7) 잘 알려져 있다시피 『한국구비문학대계』의 텍스트는 대체로 1인의 체보자가 실화 자료를 구현하면서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다양한 인물들의 대화를 재구성하여 들려주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상대경어법에 대한 기존의 연구에서는 주목되지 않았던 경북 서부방언의 구문 하나를 소개하고자 한다. 명령형어미를 기준으로 하여 각각의 등분을 ‘하소체, 하계체, 해라체’ 등으로 명명할 때, 경북 서부방언에는 하소체, 하계체, 해라체의 명령형어미와 청유형어미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구문이 존재한다. 이 구문은 (1)과 같이 ‘동사어간-명령형어미 보-청유형어미’로 이루어지는데, ‘여러 사정이 있겠지만 일단 유보하고 그것부터 하라’는 의미를 가진다.<sup>8)</sup> 이때 각각의 명령형어미와 청유형어미는 상대경어법의 등분에 따라서 일치되는 양상을 보인다.

- (1) 구 문 [V-+{명령형어미}] [보-+{청유형어미}]
- (2) ㄱ. 하소체 찾았어만 다행이요 내놓으소 봅시다, 어어. (=찾았으면 다행이요 일단 내놓소.) (7-16 구미, 333)<sup>9)</sup>
- ㄴ. 하계체 할머이 이리 들오게 보세. 들이 고마 행례 지내세. (=할멈 일단 이리 들어오게. 들이 그만 행례 지내세.) (7-16 구미, 37)  
이리 오게 보세! (=일단 이리 오게.) (7-8 상주, 536)
- ㄷ. 해라체 하이구, 야야! 님은 사람인판야 함 딜고 온나 보자. (=아이구, 애야! 님은 사람이지만 일단 한번 데리고 오너라.) (7-15 구미, 233)  
이 칼을 들어라 보자. (=일단 이 칼을 들어라.) (7-16 구미, 40)  
그래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고 이야기 해라 보자. (=그래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니? 일단 이야기해라.) (7-16 구미, 290)  
가만 있거라 보자. (=일단 가만 있거라.) (7-16 구미, 372)  
그래? 그럼 너 오늘 팔죽 짧이라 보자. (=그래? 그럼 너 오늘 일단 팔죽 짧여라.) (7-16 구미, 503)

다. 따라서 대화 참여자들끼리의 실제 발화가 아니라는 점에서 상대경어법을 논의하기 위한 자료로 불완전한 것이 사실이지만, 제보자가 재구성하는 상대경어법 체계 역시 화자의 머릿속에 존재하는 체계를 바탕으로 구성된다는 점에서 상대경어법에 대한 논의의 자료로 삼을 수 있다고 판단된다. 한편 『한국구비문학대계』의 자료는 ‘구미·선산, 상주’ 지역에 대한 자료만으로 한정되는데, 이는 조사 지역에서 ‘문경, 김천’이 제외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민원식, 앞의 논문, 조육현 앞의 논문, 이혁화, 「무주·영동·김천 방언의 음운론적 대비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2005)을 통해 확인되는 ‘문경, 김천’의 종결어미는 한국구비문학대계의 ‘구미·선산권 및 상주권’에서 나타나는 종결어미와 형태나 기능 측면에서 동질적이라 할 수 있으므로, 여기에서는 이를 경북 서부방언이라는 이름으로 다룬다.

8) 이 구문은 음운론적으로도 ‘V+{명령형어미} 보+{청유형어미}’ 사이에 휴지가 없이 발화되는 것이 보통이며, ‘청유형어미’가 쓰임에도 불구하고 ‘명령’의 의미만이 전달된다는 측면에서 특이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 이 구문은 경북 서부 지역뿐만 아니라 경북의 여타 지역에도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그 분포상의 특성이나 형태·통사적인 특성은 더 깊이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2ㄱ)에서는 하소체의 발화로서 명령형어미 ‘-(으)소’와 청유형어미 ‘-(으)비시다,’ (2ㄴ)에서는 하계체의 발화로서 명령형어미 ‘-게’와 청유형어미 ‘-세,’ (2ㄷ)에서는 해라체의 발화로서 명령형어미 ‘-아/어라, -나, -거라’와 청유형어미 ‘-자’를 확인할 수 있다. 즉 명령형어미가 하소체이면 청유형어미도 하소체이고, 명령형어미가 하계체이면 청유형어미도 하계체이며, 명령형어미가 해라체이면 청유형어미도 해라체이다. 경북 서부방언에서 (1)과 같은 구문이 각 등분에 평행하게 존재한다는 사실로 미루어, 이러한 등분 즉 하소체, 하계체, 해라체의 등분은 화자들의 인식 속에 실제함을 알 수 있다.<sup>10)</sup>

## II. 상대경어법 등분에 대한 쟁점

상대경어법 등분을 설정함에 있어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은 하이소체와 하소체의 등분 구분 여부, 격식체와 비격식체의 구분 여부 둘로 요약할 수 있다.

### 1. 하이소체와 하소체의 구분

민원식<sup>11)</sup>은 문경 방언의 ‘청자 대우 등분’을 ‘하대, 평대, 존대’의 세 등분으로 나누고 ‘하대’에는 해라체와 해체, ‘평대’에는 하계체, ‘존대’에는 하소체와 하이소체 어미를 소속시켰다. 문장 유형에 따른 분류를 제시하지 않았지만 여기에서는 편의상 문장 유형에 따라 대표적인 어미 몇몇을 제시하도록 한다.

9) 자료는 원문, (중양어로의 번역문), (출처, 쪽)의 순서로 제시한다. 자료는 원문 그대로 제시되 해당 논의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부분은 밑줄로 표시한다. 이 방언은 ‘어어,’ ‘애애’가 변별되지 않는 방언이지만 원문에 표기된 바를 따라 그대로 표기한다. 단, 표기의 오류가 명백할 때에는 괄호 속에 ‘→’로 정정하여 표시한다.

10) 하이소체에 대해서는 이러한 관용 구성의 존재를 확인하기 어렵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은 하이소체의 설정에 대한 적극적인 반대 증거가 되기는 어려울 듯하다. 하이소체에 대해서는 이러한 관용 구성을 찾기 어려운 근본적인 이유는, 존대하는 청자를 상대로 재촉하는 명령의 형식 자체가 구체적인 발화 상황에서는 자주 쓰이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하소체와 구분되는 하이소체의 설정에 대해서는 II-1.을 참조할 수 있다.

11) 민원식, 앞의 논문, 90-92쪽.

(3)	하대	평대	존대
평서문	-다	-네	-오, -습니다
의문문	-나	-은가	-오, -습니다
명령문	-아라	-게	-으소
청유문	-자	-세	-읍시다

(3)에 따르면 ‘존대’의 등분에 포함된 종결어미 중에서 명령형어미와 청유형어미는 ‘-으소, -읍시다’와 같은 하소체의 어미만 제시되어 있고, ‘-(으)이소, -(으)입시다’와 같은 하이소체 어미는 빠져있다. 실제 문경에서 나타나는 “붙잡으이소(명령), 가이소(명령), 가입시다(청유)” 등의 예에서 실현되는 “-(으)이-”를 명령형어미나 청유형어미 앞에서만 출현하는 높임의 선어말어미 ‘-(으)시-’의 형태론적 이형태로 간주함으로써,<sup>12)</sup> 종결어미의 형태에 따른 하이소체와 하소체의 변별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임지룡<sup>13)</sup>도 안동 방언을 대상으로 “가이소(去, 명령)”에서의 ‘-이-’를 “주체존칭 선어말어미” ‘-기-’가 약화된 이형태로 파악하였다. 그러나 ‘-(으)이소, -(으)입시다’에서의 ‘-(으)이-’는 역사적으로 상대 높임의 선어말어미 ‘-(으)이-’에 소급하는 것으로서,<sup>14)</sup> 공시적으로도 경북 서부방언에서 ‘하이소, 잡으이소’의 ‘-(으)이-’를 주체높임 ‘-(으)시-’의 이형태로 파악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는 (4)를 통해 분명하게 드러난다.

- (4) 가. 아이고 들오시이소 (=아이고 들어오십시오.) (7-15 구미, 358)
- 나. 이야기 하시이소 (=이야기하십시오.) (7-16 구미, 167)
- 다. 어무이요 어무이 고마 지무시이소 점두룩 사람한테 시달리 디테 지무시이소 (=어머니, 어머니 그만 주무십시오 하루 종일 사람한테 시달려 피곤한테 주무십시오.) (7-15 구미, 151)
- 르. 예, 형님 걱정하지 말고 맘 폭 놓고 마음 잡스고 기시이소 (=예, 형님. 걱정하지 말고 마음 폭 놓고 계십시오.) (7-16 구미, 32)

(4가, 나)은 각각 ‘들오-(으)시-이소,’ ‘하-(으)시-이소’ 즉 ‘어간-주체높임의 선어말어미-종결어미’로 분석된다. (4가, 나)은 행동의 주체가 곧 청자인 상황이므로 주체높임의 선어말어미 ‘-(으)시-’가 쓰인 것으로 파악된다. 만약 ‘-(으)이소’의 ‘-

12) 민원식, 위의 논문, 149쪽.  
 13) 임지룡, 앞의 논문, 473-474쪽.  
 14) 서정복, 『한국어 청자 대우 등급의 형태론적 해석(1)』, 『국어학』, 17(국어학회, 1988), 146쪽.

(으)이-’가 ‘-(으)시-’의 이형태라면 (4가, 나)에서는 주체높임의 선어말어미가 두 번 겹쳐 출현한 것이 되는데, 이는 매우 특수한 현상이 된다. 또한 (4다, 르)의 어간 ‘지무시-, 기시-’ 등은 일반적으로 높임의 선어말어미 ‘-(으)시-’와 통합되지 않지만(지무신다 \*지무시신다, 기신다 \*기시신다), ‘-(으)이소’와는 자유롭게 통합되어 쓰일 수 있다(지무시이소, 기시이소). 따라서 ‘-(으)이소’의 ‘(으)이’는 공시적으로도 주체높임의 선어말어미 ‘-(으)시-’와 전혀 관련이 없음을 알 수 있다.

경북 서부방언에서는 다른 경북 방언과 달리 각 문장 유형별로 하소체와 하이소체의 종결어미가 존재하며, 형태적으로 구분되는 하소체와 하이소체의 종결어미를 근거로 하여 높임 등분에서 이 둘의 체계적인 차이를 인정할 수 있다. 문장 유형에 맞추어 몇 예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5) 가. 평서문 하이소체: 아버지, 갖다 놓긴 지가 갖다 봤습니다. (=아버님, 갖다 놓긴 제가 갖다 놓았습니다.) (7-16 구미, 67)
- 하소체: 여보소, ...하도 내가 원통해서 그래 그거 탁 찻소. (=여보, ...하도 내가 원통해서 그것을 탁 찻소.) (7-15 구미, 240)
- 나. 의문문 하이소체: 할아버지 자아 오셨을니까? (=할아버지, 장에 오셨습니까?) (7-15 구미, 526)
- 하소체: 여보, 당신이 십 년 기약을 하고 갔는데 우에 그 전에 왔소? (=여보, 당신이 십 년 기약을 하고 갔는데 어찌 그 전에 왔소?) (7-16 구미, 105)
- 다. 명령문 하이소체: 어머니 어머니 나 앞집 큰애기한테 장개를 보내 주이소. (=어머니, 나 앞 집 처녀한테 장가를 보내 주십시오.) (7-16 구미, 70)
- 하소체: 여보소, 저거 저거 저고 가서러 자아 갖다가 파소. (=여보, 저거 저고 가서 장에 갖다가 파오.) (7-8 상주, 349)
- 르. 청유문 하이소체: 아버지 여관으로 가입시다. (=아버지, 여관으로 가십시오.) (7-15 구미, 152)
- 하소체: 난 왕서방이요. 그래 우리 이거 마 동행합시다. (=난 왕서방이요. 그래 우리 동행합시다.) (7-15 구미, 591)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하이소체와 하소체는 각 문장 유형에 따라 실현되는 종결어미가 다르다. 평서형, 의문형, 명령형, 청유형 종결어미로 하이소체에서는 ‘-

니다, -비니까, -(으)이소, -(으)입시다'가 쓰이는 반면, 하소체에서는 '-소/요, -소/요, -(으)소, -비시다'가 쓰인다. 대우하는 청자의 등분 또한 다른 것으로 파악된다. 하이소체의 청자는 '아버님, 할아버지, 어머니' 등으로 화자가 높게 대우해야 하는 대상이지만, 하소체의 청자는 '여보(소)'라는 호격어로 부를 수 있는 대상이다. 또한 부부인 경우, 일반적으로 아내는 남편에게 하소체나 하이소체를 사용하는 반면,<sup>15)</sup> 남편은 아내에게 하소체나 하계체를 사용한다. 하이소체의 쓰임과 관련하여, 아내는 남편에게 하이소체를 사용할 수 있지만 반대로 남편이 아내에게 하이소체를 사용할 수는 없는 점이 주목된다. 이는 하이소체와 하소체가 청자를 높이는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해석된다. 하이소체와 하소체의 등분 차이는 다음의 대화에서도 확인된다.

- (6) A: 당신 직장이 뭐요?  
 B: 저는 해먹을게 없어 뱃놈질 합니다.  
 A: 아, 그래요. 생일은 언제요?  
 B: 아무 날 아무 습니다.  
 A: 당신 팔자가 거북하요...뉘침[退衄]을 던져야지 당신이 사요.  
 (7-15 구미, 89)<sup>16)</sup>

(6)에서 A는 B를 대할 때에 일관되게 하소체를 사용하고, B는 A의 질문에 답할 때에 항상 하이소체로 대답한다. 이야기 속에서 A는 점괘를 치는 맹인이고 B는 맹인의 점괘 덕에 목숨을 구하는 사람이기에, B는 A에게 하이소체를 사용하고 반대로 A는 B에게 하소체를 사용한다. 따라서 이러한 하이소체와 하소체의 구분은 높임의 등분에 따른 차이에 의한 것이며, 이 방언의 화자들은 두 등분을 구별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15) 이익섭·채완, 『국어문법론강의』(학연사, 1999)에서는 중앙어에서 아내가 남편에게 “당신은 안 가겠소?”와 같이 하소체를 사용하는 것은 예외에 어긋나는 말이 된다고 하였다. 그러나 경북 서부방언에서 아내가 남편에게 쓸 수 있는 전형적인 등분은 바로 하소체이다. 또한 형제 사이에서도 성인인 동생은 형에게 하소체를 쓸 수 있다. 경북 서부방언의 하소체와 중앙어의 하소체가 실제적인 쓰임에 있어 약간의 차이를 보이는 부분이라 판단된다.  
 16) 하이소체와 하소체를 바꾸어 A와 B가 대화한다면 다음과 같다. “선생님 직장이 뭐니까?” “나는 해먹을 게 없어 뱃놈질 하요” “아 그렇습니까? 생일은 언제니까?” “아무 날 아무 시요” “선생님 팔자가 거북합니다...뉘침[退衄]을 던져야지 당신이 습니다.”

## 2. 격식체와 비격식체의 구분

중앙어를 대상으로 한 상대경어법 체계에 있어서, 일련의 연구들에서는 격식체로서 합소체, 하오체, 하계체, 해라체와 비격식체로서 해체 및 해오체를 구분하였다.<sup>17)</sup> 이는 격식체와 비격식체가 쓰이는 상황이 각각 공적인 자리/사적인 자리, 상하 관계/대등한 관계, 잘 모르거나 친하지 않은 사이/서로 친하고 허물이 없는 사이 등으로 다르고,<sup>18)</sup> 비격식체인 해체와 해오체로 표현되는 높임의 등분이 격식체와 일대일 대응을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sup>19)</sup> 이에 비하여 다른 연구들에서는 비격식체를 따로 설정하지 않고 합소체, 하오체, 하계체, 해라체 등과 동일한 자격으로 해체 및 해오체를 다루었다.<sup>20)</sup> 엄격하게 등분을 따지자면 해라체보다는 해체가 한 등분 위의 경어법이므로<sup>21)</sup> 높임의 정도 차이를 인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경북 방언의 상대경어법 체계에 대한 논의도 크게 비격식체를 따로 설정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안동 방언을 대상으로 한 강신항<sup>22)</sup>은 ‘반말체’와 ‘반말체+요’를 ‘하칭(해라체), 등칭(하계체), 중칭(하오체), 상칭(합소체)’과 구별하여 설정하였으며, 경북 방언 전체를 대상으로 한 이기갑<sup>23)</sup> 또한 해체 및 해오체를 ‘반말, 두루높임’이라 하여 이를 ‘아주높임, 예사낮춤, 아주낮춤’과 구별하였다. 이에 비하여 영해 방언을 대상으로 한 최명욱<sup>24)</sup>에서는 ‘하소체, 하계체, 해라체’만을 설정하고 해체 및 해오체의 종결어미들은 각각 해라체와 하소체에 포함되는 것으로 처리하였다. 포항 방언을 대상으로 한 김태엽<sup>25)</sup>에서도 해체 및 해오체는 따로 설정되지 않고 ‘안높임법, 아주높임법’에 포함시켰으며, 안동 방

- 17) 고영근, 『현대국어의 준비법에 대한 연구』, 『어학연구』 10-2(서울대학교 어학연구소, 1974); 서정수, 『존대법의 연구』(한신문화사, 1984); 한길, 『국어 종결어미 연구』(강원대학교 출판부, 1991); 한길, 『현대 우리말의 마침씨끝 연구』(역락, 2004)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18) 서정수, 위의 책, 40쪽.  
 19) 한길, 앞의 책(2004), 101쪽.  
 20) 이익섭, 『국어 경어법의 체계화 문제』, 『국어학』, 2(국어학회, 1974); 김정수, 『높임법의 등분』, 『말』, 21(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 1996); 이익섭·채완, 앞의 책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21) 이익섭·채완, 앞의 책, 354쪽.  
 22) 강신항, 안동방언의 서술법과 의문법, 『언어학』, 3(한국언어학회, 1978), 25~26쪽.  
 23) 이기갑, 앞의 책, 270~274쪽.  
 24) 최명욱, 앞의 책, 92~93쪽.  
 25) 김태엽, 앞의 책, 117~179쪽.

인을 대상으로 한 입지룡<sup>26)</sup>에서는 해체 및 해요체의 어미들을 따로 설정하지 않았다. 경북 서부방언이라 할 수 있는 상주 방언을 다룬 전인득<sup>27)</sup>에서는 해요체를 독립된 등분으로 설정하였으나 해체는 따로 설정하지 않고 해라체에 포함시켰으며, 문경 방언을 다룬 민원식<sup>28)</sup>에서는 해체와 해요체 모두를 별도의 등분으로 설정하지 않았다.

여기에서는 비격식체의 등분이 격식체의 등분과 뒤섞여 쓰일 수 있다는 점을 중시하여, 비격식체를 격식체와 구별하여 설정하는 입장을 따른다. 경북 서부방언에는 친밀한 상대에게 쓸 수 있는 비격식체로서 해체, 해요체, 해여체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데, 그 등분의 쓰임에 대해서는 이혁화<sup>29)</sup>에서 자세히 살펴본 바 있으므로 그 결과만을 간단히 지적하면 다음과 같다. 해체는 격식체인 해라체 및 하계체의 등분을, 해요체는 격식체인 하소체 및 하이소체를, 해여체는 해체와 해요체의 등분을 포괄하는 비격식체이다. 먼저, 비격식체 중 해체는 하계체와 해라체의 등분에 두루 쓰인다. 하계체를 사용하던 청자에게 해체를 뒤섞어 쓸 수 있으며, 해라체로 대하던 청자에게도 해체를 섞어 사용할 수 있다. 이는 해체의 상대경어법상의 등분 영역이 하계체와 해라체 모두에 걸쳐 있기 때문이다. 또한 비격식체인 해요체는 하소체와 하이소체의 등분에 걸쳐서 쓰인다. 이 역시 해요체가 나타내는 높임의 등분이 하소체 및 하이소체의 등분에 모두 걸쳐 있기 때문에 가능한 현상이다. 이러한 비격식체들은 격식체의 각 등분이 나타내는 높임의 정도와는 일대일로 대응되지 않고 두 등분 영역에 걸쳐 있기 때문에, 격식체와는 구별하여 비격식체를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격식체와 비격식체를 구별해야 하는 또 다른 근거로 (1)과 같은 구문의 편중성을 들 수 있다. (1)과 같은 구문은 ‘하소체, 하계체, 해라체’와 같은 격식체의 종결어미만 가능하다. 반면 해체나 해요체로 파악되는 비격식체의 종결어미들은 이러한 구문을 형성하지 못한다.<sup>30)</sup> 만약 공식적인 상대경어법 체계 내에서 격식체와

26) 입지룡, 앞의 논문.

27) 전인득, 앞의 논문, 8~34쪽.

28) 민원식, 앞의 논문, 90~92쪽.

29) 이혁화, 「경북 서부방언의 종결어미 ‘-어여’」, 『한국어학』 37(한국어학회, 2007), 346~357쪽.

30) (1)과 같은 구문에서 비격식체 어미의 쓰임이 제약되는 현상은, 비격식체의 어미들이 격식체의 어미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후대에 종결어미로 발달한 사정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비격식체를 구별하지 않는다면, (1)과 같은 구문에 격식체 어미들만 참여하는 현상을 적절하게 설명하기 어려울 것이다.

### III. 상대경어법의 등분에 따른 종결어미

2장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경북 서부방언에는 하이소체와 하소체가 등분상 구별되며, 격식체인 하이소체, 하소체, 하계체, 해라체와 구별되는 비격식체 해체, 해요체, 해여체가<sup>31)</sup> 인정될 수 있다. 이제 이러한 등분 체계를 기준으로 하여 종결어미 몇몇을 문장 유형에 따라 표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격식체				비격식체		
	하이소체	하소체	하계체	해라체	해체	해요체	해여체
평서문	-하니다	-요/소	-네	-다/는다	-어	-어요	-어여
의문문	-하니까	-요/소	-는가/고	-나/노 -가/고	-어	-어요	-어여
명령문	-(으)이소	-(으)소	-게	-어라	-어	-어요	-어여
청유문	-(으)입시다	-(으)버시다	-세	-자	-어	-어요	-어여

이제 격식체인 하이소체, 하소체, 하계체, 해라체 종결어미와 비격식체인 해체, 해요체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 1. 격식체 종결어미

##### 1) 하이소체 종결어미

- (7) ㄱ. 평서문 아이고 거어 다리아는 갸히 드가들 못합니다. (=아이고 거기에 다른 사람은 갸히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7-16 구미, 302)

31) 비격식체 중에서 해여체에 대해서는 안귀남, 「서북경북방언의 문장종결조사 ‘-어’」, 『문학과 언어』, 26(문학과언어학회, 2004)와 이혁화, 위의 논문을 참조할 수 있다. 특히 후자에서는 『한국구비문학대계』의 자료를 이용하여 상대경어법적인 측면에서 ‘-어여’를 다루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해여체는 따로 논의하지 않는다.

- 아, 선생님, 제가 저거 어머니 안장을 시방 못했습니다. 터 하나  
 골라 주이소 (= 아, 선생님. 제가 어머니 안장(安葬)을 못했습  
 니다. (묘)터를 하나 골라 주십시오.) (7-8 상주, 293)
- 아이, 노인장 어찌기 시장해 뵈니다. (=아니, 노인장. 매우 시장  
 해 보입니다.) (7-15 구미, 249)
- 나. 의문문 아이구, 아버님 오십니까? (=아이고 아버님 오십니까?) (7-15  
 구미, 242)
- 애이 아버지요, 그러믄 내 목숨보다 연적이 더 중합니까? 주이  
 소 (=애이 아버지, 그러면 내 목숨보다 연적(靦滴)이 더 중합  
 니까? 주십시오.) (7-16 구미, 422)
- 아재비 들에 나왔습니까?...지집에 들와서 담배 한 대 피우고  
 가이소 (=아저씨 들에 나왔습니까? 제 집에 들어와서 담배 한  
 대 피우고 가십시오.) (7-15 구미, 533)
- 다. 명령문 아버지, 아버지 걱정 마이소 조식을 잡수이소 (=아버지, 아버  
 지. 걱정 마십시오. 조식을 잡수십시오.) (7-15 구미, 77)
- 아버님, 그 가가 있으이소 (=아버님, 거기 가서 계십시오.)  
 (7-16 구미, 536)
- 아이고 들오시이소 (=아이고 들어오십시오.) (7-15 구미, 358)
- 르. 청유문 거 바아 좀 드가입시다. (=거기 방에 좀 들어가십시오.) (7-16  
 구미, 357)
- 잘 가입시다. (=잘 가십시오.) (7-15 구미, 573)
- 살려 놓입시다. (=살려 놓으십시오.) (7-15 구미, 30)

(7)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하이소체에 해당하는 이 방언의 종결어미로  
 는 ‘-비니다, -비니까, -(으)이소, -(으)입시다’ 등이 있다. 각 종결어미의 이형태와  
 실현 조건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8)	모음이나 ‘ㄹ’로 끝난 어간 ‘ㄹ’ 이외의 자음으로 끝난 어간	
평서형어미	-비니다~비니더	-습니다~습니더~습니다
의문형어미	-비니까~비니까	-습니까~습니까~습니까
명령형어미	-이소	-으이소
청유형어미	-입시다~입시더	-으입시다~으입시더

‘-비니다, -비니까’의 경우에는 중양어와 비교하여 약간의 차이가 발견된다. 중양어  
 에서 ‘-비니다, -비니까’는 하소체에 해당하는 등분으로 쓰이지만,<sup>32)</sup> 이 방언에서 이들

어미는 하이소체와 하소체 둘 다에 걸쳐서 쓰인다. 이는 다음에서 확인할 수 있다.

- (9) ㄱ. 하이소체 아이고, 노인 걱정 마이소. 아, 병도 큰병 아입디더. (=아이고,  
 노인장 걱정 마십시오. 병도 큰 병은 아닙니다.) (7-15 구미,  
 62)
- 아버지 어떻습디까?...먼저 정승매이로 그래 은쟁을 띠고 보  
 이소 (=아버지 어떻습디까? 먼저 정승처럼 은쟁[隱]을 띠  
 고 보십시오.) (7-15 구미, 141)
- 나. 하소체 “총각 보게...했지?” “어, 켜소” “그 조정의 대신들이 뭐 우에  
 헛밥을 먹소?” “어 거 뭐 만날 그놈들 헛밥 처 먹습디다.” (=“  
 “총각 보게...고 했지?” “어, 그랬소” “그 조정의 대신들이  
 뭐 어떻게 헛밥을 먹소?” “그 맨날 그놈들 헛밥 처먹습디  
 다.”) (7-16 구미, 395)
- 당신은 금 삼 천 독 있나이 한테 시집을 가만 좋다 갑디다. (=당  
 신은 금이 삼천 독 있는 사람한테 시집을 가만 좋다고 합  
 디다.) (7-8 상주, 1193)

(9ㄱ)은 모두 청자에게 ‘마이소, 보이소’ 등과 같이 ‘-(으)이소’라는 명령형어미  
 를 사용하며, 호격어로 ‘아버지’를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하이소체의 등분이라 판  
 단된다. 이때에 ‘-비디다, -비디까’ 등의 종결어미는 하이소체의 등분에 속할 수 있  
 다. 한편 (9ㄴ)은 대화 당사자끼리 서로 하소체를 사용하거나, 하소체의 대표적 호  
 격어인 ‘당신’을 사용하는 발화에서 ‘-비디다’를 쓰고 있다. 이때의 ‘-비디다’는 하  
 소체의 등분이라 할 수 있다. 결국 이 방언에서 ‘-비디다, -비디까’는 하이소체와  
 하소체의 등분 모두에서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는데, 이는 중양어에서는 하  
 십시오체의 ‘-비니다’와 기원적으로 동일한 높임 등분에서 출발한 것으로 보이는  
 ‘-비디다’가 하소체로 쓰이는 점과 대비된다.

## 2) 하소체 종결어미

하소체는 성인인 화자가 비슷한 연배의 익숙하지 않은 사람에게 말할 때 자주  
 쓰인다. 또한 부인이 남편에게 예의를 갖추어 말할 때에 하이소체와 함께 쓰인다.  
 특히 다음의 예는 남편이 어느 정도 대접하여 아내에게 말할 때에는 하소체를 써  
 야 한다는 이 방언 화자들의 인식을 보여준다.

32) 고영근, 앞의 논문, 74쪽; 서정수, 앞의 책, 53쪽.

- (10) 어린 신랑이 마느래 밥 매는데 밥을 가주갓거던 점심음. 가주가인께, 가주가 가주골랑, “밥 가주 왔어. 밥 먹어.” 그러이, 어찌 신랑이 어리서러 속이, 향시 지 마누라라고 말을 그래 하이 어예 속이 상해 쫓아 와서 고마 뚜디리 췌어. “이 머며. ‘밥 먹어’가 뭐라 내가 소(牛)라, 으? 밥 잡수소 그러지. ‘밥 먹어’가 뭐라. 이 머며.” 이래 뚜디리 쫓뿌뤼어(→조뿌뤼어). (=‘밥 먹어’가 뭐야? 내가 소야? 응? ‘밥 잡수소’ 그러지 ‘밥 먹어’가 뭐야?) (7-8 상주, 1223)

하소체에 속하는 어미로는 ‘-요/소, -(으)소, -(으)비시다’ 등이 있다. 각 문장 유형별로 몇 예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11) 가. 평서문 여보, 이러캐도 저러캐도 다 아요. 남사고는 발째 지내갓소. (=여보, 이러캐도 저러캐도 다 아요. 남사고(人名)는 벌써 지나갓소.) (7-16 구미, 274)  
 내가 사실은 사람이 아이요. 내가 귀신이요. (=내가 사실은 사람이 아니요. 내가 귀신이요.) (7-16 구미, 308)
- 나. 의문문 노인 어데 가요? (=노인, 어디 가요?) (7-15 구미, 185)  
 아이고, 청주 간다 카디 우에 하머 일찍 왔소? (=아이고, 청주에 간다고 하더니 어찌 벌써 일찍 왔소?) (7-15 구미, 53)  
 영감 왜이래 앓소? (=영감, 왜 이렇게 앓소?) (7-16 구미, 333)
- 다. 명령문 당신이 정 그렇거든 우리집에 심바람이나 하소. (=당신이 정 그렇거든 우리집에 심부름이나 하소.) (7-15 구미, 181)  
 날 좀 업으소. (=나를 좀 업으소.) (7-15 구미, 349)
- 르. 청유문 다 잡아났소. 지러 갑시다. (=다 잡아놓았소. (호랑이를) 지러 갑시다.) (7-16 구미, 284)  
 아이구 그 못 살겠소. 내 여적지 고생한 거 헛고생이고 우리 갈 됩시다. (=아이고 못 살겠소. 내가 이때껏 고생한 것 다 헛고생이고 우리 이혼합시다.) (7-15 구미, 324)

평서형어미 및 의문형어미인 ‘-요/소,’ 명령형어미 ‘-(으)소,’ 청유형어미 ‘-(으)비시다’의 구체적인 이형태와 실현 조건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2)	모음이나 ‘ㄹ’로 끝나는 어간	‘ㄹ’ 이외의 자음으로 끝난 어간
평서형어미	-요	-소
의문형어미	-요	-소
명령형어미	-소	-으소
청유형어미	-비시다	-읍시다

평서형어미와 의문형어미는 ‘-요/소’로 형태가 동일하다. ‘-요’는 선행 어간이 모음이나 ‘ㄹ’로 끝나는 경우에(가요, 오요, 하요, 탕기요, 우요 등), ‘-소’는 선행 어간이 ‘ㄹ’ 이외의 자음으로 끝난 경우에 실현된다(있소, 없소, 막소, 했소, 많소 등). ‘-요/소’ 앞에 선어말어미가 통합될 때에도 실현되는 이형태의 실현 조건은 동일하다. 즉 모음으로 끝나는 ‘-(으)시-, -(으)리라’ 등이 선행할 때에는 ‘-요’가(가시오, 갈라요, 막으시오, 막을라요<sup>33)</sup> 등등), ‘-았-, -겠-’ 등이 선행할 때에는 ‘-소’가 실현된다(갓소, 가겠소, 막았소, 막겠소 등등).

명령형어미 ‘-(으)소’도 이형태 ‘-소/-으소’의 실현 조건이 동일하다. 즉 선행 어간이 모음이나 ‘ㄹ’로 끝나는 경우에는 ‘-소’가, ‘ㄹ’을 제외한 자음으로 끝나는 경우에는 ‘-으소’가 실현된다.

- (13) -소 가소, 오소, 하소, 아소(알, 知), 우소(울, 泣)  
 -으소 있으소, 막으소, 영으소(영, 擲), 꿏으소, 뚫으소(뚫, 貫)

명령형어미 ‘-(으)소’ 앞에 주체 높임의 선어말어미 ‘-(으)시-’가 통합될 경우에, ‘-시소’가 실현될 것으로 기대된다. 예를 들어 ‘하소’에 주체 높임의 ‘-(으)시-’가 통합되면 ‘하시소’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 방언에서 ‘하시소’의 형태는 거의 나타나지 않고 ‘하시오’의 형태가 많이 나타난다.<sup>34)</sup>

- (14) 가. 담박에 이장하시오. (=당장 이장(移葬)하시오.) (7-15 구미, 70)  
 나. 당신 팔자가 거북하요. 시 분 죽을 고비를 넘기야 당신이 사는데, 그 당신이, 아 그라고 당신이 나한테 은인인께 육페나 한번 빼고 가시오. (7-15 구미, 89)  
 다. 그래든 좋은 수가 있소. 오늘 여개 우리 마을에 큰 부잣집이 하나 있는데 그 집에 오늘 기구가 드요. 드는데 거어 가만 우에 씨 멀 일이

33) ‘막을라요’의 ‘-요’는 해요체의 ‘-요’가 아니라 하소체의 ‘-요’이다. 어간 ‘막-’에 선어말어미 ‘-(으)리라’가 통합된 형태를 상대경어법상의 등분에 따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평서형: 막을랍니다. 막을라요, 막을라네, 막을란다, 막을래, 막을래요, 막을래어. 의문형: 막을랍니까, 막을라요, 막을라는가/고, 막을라나/노, 막을래, 막을래요, 막을래어. 명령형·청유형어미는 의도의 선어말어미 ‘-(으)리라’와의 통합이 불가능하다.

34) ‘계사, 모사, 주무사-’ 등의 어간에 명령형어미 ‘-소’가 결합된 ‘계시소, 모시소, 주무시소’ 등은 공식적으로 선어말어미 ‘-(으)시-’가 통합된 예라 볼 수 없으므로 성격이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있으니까 하니 한분 가 보시오 (7-16 구미, 262)

- ㄹ. 인증 예를 치러야 되지. 이 집에 살로 왔으께 뭐 그키 급하요? 그러니 거어선 못 자니 내 혼자 자두록 해 주시오(→주시오). (=아직 예를 치러야 되지, 이 집에 살러 왔으니까 뭐가 그리 급하요? 그러니 거기선 못 자니 나 혼자 자게 해 주시오) (7-8 상주, 737)

이 방언에서 하이소체의 명령형어미 ‘-이소’가 주체 높임의 선어말어미 ‘-(으)시-’와 자유롭게 통합되는 점을 감안하면, 하소체의 명령형어미 ‘-(으)소’에 ‘-(으)시-’가 통합된 형태가 출현하지 않는 것은 특이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은 경북 서부방언의 방언적 성격과 관련이 깊을 것으로 짐작된다. 즉 ‘하시오’ 형식은 중부 방언에서 하소체의 명령형어미 ‘-오’에 ‘-(으)시-’가 통합된 형식으로서, 경북 서부방언에서는 중부방언의 이 형식을 차용한 것으로 보인다.

청유형어미 ‘-(으)비시다’의 이형태 ‘-비시다’는 모음이나 ‘-르’로 끝나는 어간 뒤에서, ‘-읍시다’는 ‘-르’이외의 자음으로 끝나는 어간 뒤에서 쓰인다.

### 3) 하계체 종결어미

하계체는 상위자가 성인인 하위자에게 쓸 수 있는 등분으로, 둘 다 성인인 경우 형이 동생에게, 남편이 아내에게, 손윗동서가 아랫동서에게 쓸 수 있으며, 성인인 친구끼리도 자주 쓰인다. 호격어로는 ‘이 사람아, 자네, 동상(동생)’ 등이 자주 나타난다. 경북 방언에서 하계체는 어머니나 숙모 등과 같은 존속에게도 사용되는 데,<sup>35)</sup> 경북 서부방언에서도 이러한 하계체의 쓰임을 확인할 수 있다.

- (15) 꿈이 어떡고 어메 해몽을 좀 해주께. (=꿈이 어떤지 엄마, 해몽(解夢)을 좀 해주세요.) (7-15 구미, 210)

하계체의 어미로는 ‘-네(평서형), -는가/-(으)는가/-(으)고/-(으)고(의문형), -게(명령형), -세(청유형)’ 등이 있다. 먼저 이형태가 단순한 ‘-네, -게, -세’를 보면 다음과 같다.

- (16) ㄱ. 평서문 자네 아들이 암전하네. (7-15 구미, 221),  
야, 이 사람아. 내가 목어도, 술을 목어도 마이 목고, 마이 목네.

(7-15 구미, 249)

- 나. 명령문 내가 이 사람아, 내가 사램이 아니네. (7-15 구미, 249)  
자네 증신을 좀 하께. (=자네, 증매를 좀 하께.) (7-15 구미, 608)  
여어 기기 잡아 닐네 나오께. (=여기에 고기 잡아냈네. 나오께.) (7-16 구미, 147)
- ㄷ. 청유문 한 잔 붓께. (=술 한 잔, 붓께.) (7-8 상주, 536)  
우리 딸 저리 주세. (=우리 딸, 저리 주세.) (7-16 구미, 95)  
자네를 칭했은게 아무 거석 말고 나하고 같이 노세. (=자네를 칭했으니까 아무 거시기 말고 나하고 같이 노세.) (7-16 구미, 336)  
아 이사람아, 말 하나 문세. (=야 이 사람아, 말 하나 문세.) (7-15 구미, 86)

하계체의 평서형어미로는 ‘-네’가 대표적이다(16ㄱ). 동사, 형용사, 지정사 어간 뒤에 두루 통합되며, 선형 어간의 음운론적 구조에 상관없이 항상 ‘-네’로만 실현된다. 명령형어미로는 ‘-게’(16ㄴ), 청유형어미로는 ‘-세’(16ㄷ)가 있으며, 항상 ‘-게, -세’로 실현된다.

또 다른 평서형어미로 ‘-르세’가 쓰인다. 이 ‘-르세’는 주로 지정사 아래에서의 쓰임만이 확인되는데,<sup>36)</sup> 평서형어미 ‘-네’로 대체될 수 있는 경우가 많다.

- (17) -르세 그 이립잖은 일일세. (=그 어렵잖은 일이네.) (7-15 구미, 608)  
저 자 자네 아버지 산술세. 잘 보께. (=저, 자 자네 아버지 산수네. 잘 보께.) (7-16 구미, 100)

36) 민원식, 앞의 논문, 135쪽에서는 “그래만 되만 자네 좋을세”의 예문을 통해, 형용사와 결합할 경우 “추측서술”의 의미를 가진다고 하였다. 이에 비해 전인득, 위의 논문, 18-19쪽에서는 ‘-르세’가 “체언서술어”에만 연결될 수 있고 하면서 형용사와 결합한 “\*닐은 시마 좋을세.”(=내일은 쉬면 좋겠네)를 비문으로 처리하였다. 이러한 차이가 문경과 상주의 방언 차이인지 확실하지 않으나, 경북 서부방언과 인접한 <성주>에서 동사와 결합한 ‘-을세’가 보고되어 있다. 이상규, 『경북 방언 사전』(태학사, 2000), 389쪽에는 “오늘 참, 기신을 이린 걸 만났으마 당장 죽을세.(성주)”의 예문이 제시되어 있는데, 동사와 결합할 경우에도 ‘-을세’가 쓰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이동화, 『성주지역어의 종결어미 연구』, 『영남어문학』, 13(영남어문학회, 1985), 177쪽에서는 “그 일은 나도 할세.(성주)”의 예문이 제시되어 있다. 그러나 지정사 아래 쓰인 ‘-르세’의 경우 ‘추정’의 의미는 전혀 찾을 수 없는 데에 비하여, 동사나 형용사 아래에 쓰인 ‘-을세’는 추정의 의미를 강하게 가진다는 차이가 있다. 이기갑, 『국어방언문법』(태학사, 2000), 234쪽에 따르면 서남방언에서 이 어미에 대응되는 ‘-시’는 지정사와 형용사는 물론 동사와 결합할 수 있어, 방언에 따른 용법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35) 이상규, 앞의 논문, 63쪽.



허허 그 참, 석 달만 기다리게, 석 달만 기다리만 참 그럴 때가 있는가 할 꼴새. (= 허허 그 참, 석 달만 기다리게, 석 달만 기다리면 참 그럴 때가 있는가 할 거네.) (7-8 상주, 91)

의문형어미로는 ‘-는가/(으)나가, -는고/(으)나고’ 등이 있다.<sup>37)</sup>

- (18) 가. -는가     그래 자네 그러든 소는 한 마리 있는가? (=그래 자네 그러면 소는 한 마리 있는가?) (7-16 구미, 296)  
 하, 동상들 찾아 오는가? (=하, 동생들, 찾아오는가?) (7-8 상주, 152)
- 나. -(으)나가    그래. 그 사람 들을 지키고 있오마 자네가 올 수 없느, 자네 보구지분가? (=그래, 그 사람들이 들을 지키고 있으면 자네 가 올 수 없네. 자네, 보고싶은가?) (7-16 구미, 114)  
 자네는 옷이 없어서 과거를 못 간단 말인가? (=자네는 옷이 없어서 과거를 못 간단 말인가?) (7-15 구미, 507)
- 다. -는고        “도령 어데 가는고?”...“어데서 왔는고?” (=“도령, 어디에 가는가?” “어디에서 왔는가?”) (7-15 구미, 113)  
 허, 자네 수수를 우애 이래 가져 오는고? (=허, 자네 수수를 어째서 이렇게 가져 오는가?) (7-16 구미, 296)
- 르. -(으)나고    이 잔치가 무슨 잔친고? (=이 잔치가 무슨 잔친가?) (7-15 구미, 135)  
 아이고, 뽕비기 자네 오늘 어쩐 일인고? (=아이고 뽕비기 자네 오늘 어쩐 일인가?) (7-15 구미, 354)

동남방언의 한 특징으로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의문형어미는 의문문의 성격에 따라 달리 실현된다. 즉 관정의문문인 경우에는 ‘-는가’와 ‘-(으)나가,’ 설명의문문인 경우에는 ‘-는고’와 ‘-(으)나고’가 실현된다. 동사 뒤에서는 ‘-는가, -는고’ 형용사나 지정사 뒤에서는 ‘-(으)나가, -(으)나고’가 실현된다. 단, 어간 ‘있-, 없-’과 선어말어미 ‘-겠-, -았-, -(으)르라.’ 뒤에서는 전자가, 선어말어미 ‘-더-’ 뒤에서는 후자가 실현된다. 경북 서부방언에서도 이러한 구별은 그대로 유지된다.

그러나, 설명의문문의 경우에는 간혹 ‘-는고/(으)나고’ 대신 ‘-는가/(으)나가’가

37) 한편, 의문형어미 ‘-는공/(으)나공, -는강/(으)나강’도 아울러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다. “하이 이 사람이, 저게 뭘공?” (7-8 상주, 1187) “그래 총각 낭군하고 산께 재미가 좋던강?...” (7-16 구미, 166) “우안, 우안 그래 사람인공?” (7-16 구미, 164) “아버지 돌아가시마 그래 묘소 덜일 터가 어데 존 데 있는강?” (7-16 구미, 167) “개코 죽은 놈의 쥐가 우는강?” (7-16 구미, 539) 이들 이형태의 실현 조건은 ‘-는가/(으)나가, -는고/(으)나고’와 동일하다.

실현되는 경우도 발견할 수 있다. 이는 경북 서부방언이 가진 접촉 방언으로서의 성격과 관련될 것이다.

- (19) 가. 야 이사람야, 누 집에 불이 났는가? (=야 이 사람야, 누구 집에 불이 났는가?) (7-16 구미, 35)  
 나. 저쪽 건너 저게는 누가 사는가?<sup>38)</sup> (= 저쪽 건너 저기에는 누가 사는가?) (7-8 상주, 152)  
 다. 그 자네 집에 그 저 색씨가 그래 누군가? (=그 자네 집에 저 색씨가 누군가?) (7-8 상주, 537)

(19)는 모두 설명의문문이므로 다른 동남방언이라면 각각 ‘났는고, 사는고, 누군고, 아는고, 일인고’ 등으로 실현될 것이다. 하지만 경북 서부방언에서는 설명의문문의 경우에도 ‘-는가/(으)나가’가 쓰이는 현상을 종종 발견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설명/관정 의문문의 구별에 상관없이 하계체의 의문형어미가 ‘-는가/(으)나가’로 단일한 중부 방언의 영향에 말미암은 것이라 판단된다.

#### 4) 해라체 종결어미

해라체는 상위자가 하위자에게 쓸 수 있는 전형적인 등분이다. 해라체의 평서형어미로는 ‘-는다/나다/다/라’가, 의문형어미로는 ‘-나/노/가/고’가, 명령형어미로는 ‘-어라, -거라, -너라~니라~이라~나나~너너라’ 등이, 청유형어미로는 ‘-자’가 있다. 먼저 평서형어미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20) -는다     밤참을 미역국 한 그릇하고 밥 한 그릇하고 묵는다. (=나는 밤참으로 미역국 한 그릇하고 밥 한 그릇을 먹는다.) (7-8 상주, 150)  
 그래. 나는 안 죽는다. (=그래, 나는 안 죽는다.) (7-15 구미, 579)
- 나다        아이구 야야 가거라. 아이구 야야, 저 집 선배도 간다. 저 집 선배도 간다. 가거라. (=아이고 야야, 가거라. 아이구 야야, 저 집 선배도 간다, 저 집 선배도 간다. (너도) 가거라.) (7-15 구미, 275)  
 너거 정지 아무도 들오지 마라. 내 혼차 할란다. 온 아작은 내 혼차 할란다. (=너희, 부엌에 아무도 들어오지 마라. 나 혼차 하란다. 오늘 아침은 나 혼차 하란다.) (7-15 구미, 222)
- 다         그레이면 존 수가 있다. 당신 여 있고 주소만 내라 보자. (=그러면

38) (19)가, 나)은 모두 발화 상황을 고려할 때, 설명의문문임이 분명하다. (19)가)에 대한 답으로는 “여서방네 집,” (19)나)에 대한 답으로는 “공사헌네 산다”라는 설명이 대화 뒤에 나오기 때문이다.

좋은 수가 있다. 당신은 여기 있고 주소만 일단 내라. (7-15 구미, 206)

아이 이 높아, 니가 알 일이 아이다. (=아이, 이 높아. 니가 알 일이 아니다.) (7-8 상주, 1219)

-라 집에 간게 아무도 없더라. (전인득 1979:12)

(20)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는다/는다/다/라’와 같은 평서형어미의 이형태와 실현 조건은 중앙어와 크게 다르지 않다.

- (21) -나 니가 돈만 있으마 장사는 할 수 있냐? (=네가 돈만 있으면 장사는 할 수 있느냐?) (7-15 구미, 189)  
 그래, 그게 머슴아더나 기집아더나? (=그래, 그게 사내아더나 계집아더나?) (7-15 구미, 248)
- 노 어데 있노? (=어디 있느냐?) (7-15 구미, 112)  
 어데 갔더노? (=어디 갔더냐?) (7-15 구미, 113)  
 아이, 원수야, 죽은 놈이 우예 사노? 죽은 놈이 우예 사노? (=아이 원수야! 죽은 놈이 어떻게 사느냐?) (7-15 구미, 196)
- 가 이넘이 정신이 있는 놈이간 없는 놈이간? (=이 놈이 정신이 있는 놈이냐, 없는 놈이냐?) (7-15 구미, 326)  
 참 아인게 아이라 무도한 놈아, 무도한 놈아. 사람을 나두고 거 니 혼자 먹는다 말이간? (=참 아닌 게 아니라 무도(無道)한 놈아. 사람을 놔두고 너 혼자 먹는다 말이냐?) (7-15 구미, 334)
- 고 우째 이 모양이코? (=어찌 이 모양이냐?) (7-15 구미, 116)  
 보자. 뗏이코? (=보자. 뗏이냐?) (7-15 구미, 153)  
 저 수꾸가 몇 해 큰 기코? (=저 수수가 몇 해 큰 것이냐?) (7-15 구미, 511)

(2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나/노/가/고’의 이형태 실현 조건은 다음과 같다. ‘-나/노’와 ‘-가/고’의 실현은 선행 성분의 문법 범주에 의해 결정된다. 동사나 형용사 뒤에서는 ‘-나/노’가(가나/노, 이쁘나/노 등등), 지정사 뒤에서는 ‘-가/고’가 실현된다(책이/고, 새가/고 등등). 단, 선어말어미 ‘-더-’ 뒤에서는 동사, 형용사, 지정사 여부에 상관없이 항상 ‘-나/노’만 실현된다.<sup>39)</sup> 또한 의문문의 성격에 따라서도 이 형태가 달리 실현된다. 즉, 관정의문문인 경우에는 ‘-나’ 혹은 ‘-가’가 쓰이며, 설명 의문문인 경우에는 ‘-노’ 혹은 ‘-고’가 쓰인다.

39) 동사, 형용사, 지정사 뒤에 ‘-더-’가 통합되는 예를 보이면 다음과 같다. “집에 가더나? 누 집에 가더노? 이쁘더나? 누가 이쁘더노? 그기 찰밥이더나? 무슨 밥이더노?”

그런데 의문형어미로 ‘-노’가 쓰일 것으로 예상되는 설명의문문의 경우에, 간혹 ‘-나’가 쓰이는 예를 찾아볼 수 있다. 이는 앞서 살펴본 하계체의 의문형어미에서도 발견되는 현상으로서, 중부방언에 접한 경북 서부방언의 한 특징으로 해석된다.<sup>40)</sup>

- (22) 니가 어예 미영을 하냐? (=네가 어떻게 목화를 하느냐?) (7-8 상주, 161)  
 미영할 중 알마 와 그키 반두계미마 사냐? (=목화를 할 줄 알면 왜 그렇게 소꿉장난만 사느냐?) (7-8 상주, 161)  
 그 우째 하마 사냐? (=그 어떻게 하면 사느냐?) (7-8 상주, 733)  
 아야, 아야, 돌클 일고 뜨물을 빼고 밥을 하지, 이걸 우째라고 이래냐? (=애야, 돌을 일고 뜨물을 빼고 밥을 하지, 이걸 어찌려고 이러느냐?) (7-8 상주, 448)

명령형어미는 ‘-아/어라’가 대표적이다. ‘-아라’는 대체적으로 선행 어간의 모음이 ‘아, 오’ 등일 때에, ‘-어라’는 그 외의 경우에 실현된다. 선행 어간이 ‘가, 있, 인나’ 등일 때에는 ‘-거라’가 실현되는데, 이 ‘-거라’는 ‘-어라’로 대치가 가능하다. ‘-너라~니라~이라~나~너라’는 선행어간이 ‘오’이거나 ‘오-’와 관련된 복합어간 ‘들오-, 나오-’ 등일 때에 나타난다.

- (23) -어라 나, 이, 이 양반 따라 갈턴게 너어들은 너어들대로 잘 살아라. (=나, 이 양반 따라 갈테니까 너희들은 너희들대로 잘 살아라.) (7-8 상주, 174)  
 가져왔나? 잡아라. 학의 모가지를 틀어라. (7-8 상주, 690)  
 오나. 너저 장 죽 끓이 목는구나? 똑 내 말마 들어라. (=오나, 너희 늘 죽 끓여먹는구나. 꼭 내 말만 들어라.) (7-15 구미, 277)
- 거라 아나, 여 있다. 가주 가거라. (=옛다, 여있다. 가져 가거라.) (7-8 상주, 690)  
 야 고만 인나거라. 인나거라. 인나 아침 먹어라. (=애, 그만 일어나 거라. 일어나거라. 일어나 아침 먹어라.) (7-8 상주, 425)  
 cf. 고만 너는 니 방에 자로 가라. (=그만 너는 네 방에 자러 가라.) (7-15 구미, 37)
- 너라 아, 그래, 지방 이리 가져 오너라 보자. (=아, 그래? 일단 지방(紙  
 니라- 榜)을 이리 가져 오너라.) (7-16 구미, 264)

40) 한편, 지정사 뒤에서 쓰이는 ‘-가/고’의 경우에는 이러한 혼동을 보이는 예를 찾아보기 어렵다. 동사나 형용사 뒤에서 쓰이는 어미 ‘-나/노’의 경우에만 의문사의 유무라는 기준에서 혼동이 나타나고, 지정사 뒤에서 쓰이는 ‘-가/고’에 이러한 혼동이 없는 것은, 방언 접촉과 관련하여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이라~ 달고 오니라, 달고 오니라. 내 그 늬 보구 싫다. (=테리고 오니라,  
 니~ 테리고 오니라. 내가 그 늬 보고싫다.) (7-8 상주, 790)  
 니니라 암말도 말고 갔다가 널 아침에 소물고 흠찌이하고 쟁기하고 짚어  
 지고 오이라, 논으로. (=아무말도 말고 갔다가 내일 아침에 소를  
 물고 극쟁이하고 쟁기하고 짚어지고 오니라, 논으로.) (7-8 상주,  
 32)  
 니 여 달갈을 거어 갔다 묻고 온나. (=너, 달갈을 거기 갔다 묻고  
 오니라.) (7-16 구미, 270)  
 모도 가거든 가 온니라. (=모두 가거든 가져 오니라.) (7-16 구미,  
 149)

청유형어미로는 ‘-자’가 있다. 형태와 기능은 중앙어와 크게 다르지 않다.

- (24) -자 야 순남야 저 해나 문 우 저 있는가 가보자. 저 맵기 가자.(=야, 순  
 남야! 저 행어나 문 위에 있는가 가보자. 저기 다녀 가자.) (7-15  
 구미, 152)  
 고마 밥 먹고 누우 자자. (=그만 밥 먹고 누워 자자.) (7-15 구미,  
 237)

## 2. 비격식체 종결어미

경북 서부방언의 비격식체 종결어미 해체 및 해요체는 친밀한 상대일 때에 사  
 용되며, 해체는 격식체 중 해라체와 하계체의 등분에 걸치고 해요체는 격식체 중  
 하소체와 하이소체 등분에 걸치는 특징이 있다.

### 1) 해체 종결어미

해체의 대표적인 종결어미는 ‘-어’이다. 중앙어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 방언에  
 서 이 어미는 평서문, 의문문, 명령문, 청유문 등에 두루 쓰인다.

- (25) 평서문 그런데 딸을 젤 만이로 놓고 그 다음에 아들 칠 남매를 냈어. (=그  
 런데 딸을 제일 만이로 놓고 그 다음에 아들 칠 남매를 낳았어.)  
 (7-8 상주, 566)  
 대추가 주먹만 해. (7-16 구미, 399)  
 니 명에 못 디져. (=네 명에 못 죽어.) (7-8 상주, 713)  
 걱정하지 마라. 팔아. 육천 냥 받아.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라. 팔아. 육천 냥 받아. 걱정하지 마.) (7-8 상주, 667)  
 의문문 그 다 필요있어? 나한테 달렸지, 무슨 상관 있어? (=그 다 필요있  
 어? 나한테 달렸지, 무슨 상관 있어?) (7-8 상주, 713)  
 그건 오지. 안 오다이? 당신 걸은 사람을 베리고 안 와? 와어. 틀림  
 없이 댕기 와어. 그건 걱정 마. (=오지. 안 오다이? 당신같은 사람  
 을 베리고 안 와? 와. 틀림없이 다녀와. 그건 걱정 마.) (7-8 상주,  
 718)  
 명령문 야, 이놈야! 쟈기 들고 와. 아 죽어어! (야, 이놈야! 빨리 들고 와.  
 애 죽어!) (7-8 상주, 752)  
 밥 가주 왔어. 밥 먹어. (=밥 가져왔어. 밥먹어.) (7-8 상주, 1223)  
 야이, 야이, 인났어. 얼른 가. 얼른 가. (=야, 일어났어. 얼른 가. 얼  
 른 가.) (7-8 상주, 326)  
 청유문 나하고 같이 가. (전인득 1979:32)  
 나하고 같이 해. (전인득 1979:32)

한편 이 어미는 지정사 뒤에서는 ‘-라’로 나타난다.

- (26) -라 그래 가이 참 박씨부인이 자는 방이라. 야 박씨부인이 보이, 여여 인  
 제 스파이라. (=그래 가니까 참 박씨부인이 자는 방이야. 야, 박씨부  
 인이 보니, 여여 이제 (그 사람이) 스파이야.) (7-16 구미, 416)  
 한 자 같치만 마마 열 자 스무 자 알아어, 천재라. (=한 자(字) 가르치  
 면 열 자 스무 자 알아, 천재야.) (7-15 구미, 176)  
 무슨 말이랴? (=무슨 말이야?) (7-16 구미, 279)

(26)의 ‘-라’에 대해서는 몇몇 이견이 존재한다. 이때의 ‘-라’를 “단정적인 서술  
 을 피하려고 얼버무리거나 설명하거나 보고하는 형식의 서술 기능”을 가진 것으로  
 보아, “단정적인 서술”의 ‘-다’와 구별되는 해라체 어미로 파악하는 견해도 있  
 고,41) 해라체의 평서형어미 ‘-다’의 “형태음운론적 변동형” 곧 지정사 뒤에서만 출현  
 하는 조건된 이형태로 파악하는 견해도 있다.42) 그러나 지정사 뒤에서 실현되는 ‘-  
 라’는 해라체의 평서형어미 ‘-다’와 관련되는 것이 아니라, 해체(반말체)의 종결어미  
 ‘-어’의 이형태다.43) 만약 (26)의 ‘-라’가 해라체 평서형어미 ‘-다’의 이형태라면, 지정  
 사 뒤에서는 항상 ‘-라’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41) 최명옥, 앞의 책, 67쪽.

42) 민원식, 앞의 논문, 95쪽, 김태엽, 앞의 책, 118쪽.

43) 이기갑, 앞의 책, 271쪽.

- (27) ㄱ. 해라체 야강 내강 한 동갑이다. (=애랑 나랑 동갑(同甲)이다.)
- ㄴ. 해체 야강 내강 한 동갑이란다. (=애랑 나랑 동갑이야.)
- ㄷ. 해요체 야강 내강 한 동갑이라요. (=애랑 나랑 동갑이에요.)

(27ㄱ)과 (27ㄴ)에서 보듯 ‘-다’와 ‘-라’는 지정사 뒤에서 함께 나타나기 때문에, 이들을 동일한 형태소에 속하는 조건된 이형태로 볼 수 없다. 지정사 뒤에서 나타나는 ‘-라’는 ‘-요’와 통합됨으로써 해요체 어미로 기능하기 때문에(27ㄷ), 해체의 종결어미 ‘-어’의 이형태로 간주된다.44)

(26)에서 보듯, ‘-라’는 의문형어미로도 기능한다. 이는 지정사 뒤에서 출현하는 중양어의 어미 ‘-야’(책이야)가 평서형어미와 의문형어미로 동시에 쓰인다는 사실과 평행한 것이다. 이 방언에서 지정사 다음에 결합되는 해라체의 의문형어미와 해체의 의문형어미를 함께 보이면 다음과 같다.

- (28) ㄱ. 해라체 이님이 정신이 있는 놈이가 없는 놈이가? (=이 놈이 정신이 있는 놈이냐, 없는 놈이냐?) (7-15 구미, 326)
- 그래 우째 이 모양이고? (=그래 어찌 이 모양이냐?) (7-15 구미, 116)
- ㄴ. 해체 이님이 정신이 있는 놈이라 없는 놈이라? (=이 놈이 정신이 있는 놈이야, 없는 놈이야?)
- 그래 우째 이 모양이라? (=그래 어찌 이 모양이야?)

해라체의 경우 지정사 뒤에서는 의문형어미로 ‘-가/고’가 의문문의 성격(판정의 문문/설명문의문문)에 따라 달리 실현되지만, 해체에서는 ‘-라’로 형태가 단일하다.45)

44) 지정사 뒤에서 통합되는 상대경어법상 각 등분의 평서형어미를 보이면 다음과 같다.

	하십시오체	하오체	하계체	해라체	해체	해요체	-
	하이소체	하소체	하계체	해라체	해체	해요체	해어체
중양어	책입니다	책이오	책이네	책이다	책이야	책이에요	-
경북 서부방언	책입니다	책이오	책이네	책이다	책이라	책이랴요	책이랴어

45) 경북 일부 지방의 경우, ‘-라/로’로 실현되기도 한다. 강신항, 위의 논문, 19쪽에서는 의문사가 없을 경우에 “이게 사과나무라?(이것이 사과나무냐?)”, 의문사가 있는 경우 “이게 누: 다리로?(이것이 누구 다리냐?)”를 제시함으로써, 안동 방언에서 지정사 뒤에서 쓰이는 ‘-라/로’의 존재를 확인하였다.

**2) 해요체**

해요체의 대표적인 어미로 ‘-아/어요’가 있다. 이는 해체의 종결어미 ‘-아/어’에 ‘-요’가 통합된 것으로서, 여러 문장 유형에 두루 쓰인다.

- (29) ㄱ. 평서문 여 우에 돈이 자꾸 나와요. 보이소, 보이소. (=여기 어제 돈이 자꾸 나와요. 보십시오, 보십시오.) (7-16 구미, 94)
- 그날 저녁사 말고 날이 디기 추워요. (=그날 저녁에 하필 날이 되게 추워요.) (7-16 구미, 262)
- 원앙침이라고 돌이 비는 이래 진기 있어요. (=원앙침(鴛鴦枕)이라고 돌이 베는, 이렇게 긴 게 있어요.) (7-8 상주, 76)
- ㄴ. 의문문 난 당시을 위해서 평상을 내가 소복할라고 이래 있는데 그런 애무한 소리를 왜 해요? (=난 당신을 위해서 평생을 내가 소복(素服)하려고 이렇게 있는데 그런 이상한 소리를 왜 해요?) (7-15 구미, 324)
- 디리고 자놓고 왜 저캐요? (=쳐녀를) 데리고 자놓고 왜 저래요?) (7-8 상주, 552)
- ㄷ. 명령문 사우도 당신이 봤고 당신 좋아한 긴께 난 모르요. 당신 마음대로 해요. (=사위도 당신이 봤고 당신이 좋아한 것이니까 난 모르요. 당신 마음대로 해요.) (7-8 상주, 694)
- 집 좀 바요. (전인득 1979:34)
- ㄹ. 청유문 나하고 같이 놀로 가요. (=나하고 같이 놀러 가요.) (전인득 1979:34)
- 나하고 같이 밭 매로 가요. (=나하고 같이 밭 매러 가요.) (전인득 1979:34)

해요체 ‘-아/어요’가 결합된 형식은, 하소체의 평서형어미와 의문형어미 ‘-요/소’가 결합된 형식과 형태적으로 같아지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어간 ‘-가’에 하소체의 의문형어미인 ‘-요/소’의 ‘-요’가 통합되는 경우와, 해요체의 의문형어미인 ‘-아요’가 통합되는 경우는 모두 ‘가요’라는 형식으로 나타난다.

- (30) ㄱ. 하소체 날이 많이 덥소. 지금 어데 가요?  
    집에 빨리 가소! 내강 같이 갑사.
- ㄴ. 해요체 날이 많이 덥어요. 지금 어데 가요?  
    집에 빨리 가요! 내강 같이 가요.

앞에서는 해체의 ‘-아/어’가 지정사 뒤에 연결될 때에는 이형태 ‘-라’로 실현됨을 확인하였다. 해요체의 ‘-아/어요’ 역시 지정사 뒤에서는 ‘-랴요~래요’로 실현된다.

- (31) 그런 께쌌한 생각이 들더라는 기래요 이진 만다시 이진 사람이 쓰던 도끼가 여기 있으니까 이거는...늑이 쓸어가고 말이라요 손으로 만지만 그 사람들은 아메 감각으로 아는 모양이래요 근데 인제 '있다' 이래가주고 께쌌해가지고 말이라요 도끼를 께 집어 내뺐렸어요<sup>46)</sup> (7-8 상주, 41)  
 아 그래 얘기하니까 그래 자기 부인이 떨거등요. 안 그렇겠어요? 무서울 거 아이래요? (7-8 상주, 47)

#### IV. 맺음말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경북 서부방언의 상대경어법 등분 체계는 크게 격식체와 비격식체로 구별되며, 격식체의 등분에는 하이소체, 하소체, 하계체, 해라체의 4등분이, 비격식체의 등분에는 해요체와 해체가 인정된다. 이러한 상대경어법 체계의 설정에 있어서 쟁점이 되는 사항은 하이소체와 하소체의 구별, 격식체와 비격식체의 구별 여부의 2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경북 서부방언에서는 하이소체와 하소체의 구별이 인정된다. 평서문, 의문문, 명령문, 청유문 등 각각의 문장 유형에 있어서 하이소체와 하소체의 종결어미는 모두 형태적으로 구별된다. 각각의 문장 유형에 따라서 하이소체는 ‘-니니다(평서), -니니까(의문), -(으)이소(명령), -(으)입시다(청유),’ 하소체는 ‘-요/소(평서), -요/소(의문), -(으)소(명령), -(으)비시다(청유),’ 등으로 종결어미가 형태적으로 구별된다. 또한 실제 대화에서도 이 둘의 차이는 분명하게 파악된다. 하이소체는 상위자로서의 성격이 분명한 청자 예를 들어 아버지나 할아버지 등을 대할 때에 사용되고, 하소체는 성인인 화자가 나이나 사회적 신분의 차이가 크지 않은 청자를 대할 때 ‘여보, 당신’ 등의 호격어와 함께 사용된다. 한 인물은 상대방에게 하이소체만을 사용하고 그 상대방은 반대로 하소체만을 사용하는 실제 대화 자료를 통하여, 경북 서부방언의 화자들에게 하이소체와 하소체는 별도의 등분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등분의 구별은 여타의 경북방언과 차이가 나는 경북 서부방언

46) ‘내뺐렸어요’는 ‘내뺐+있+어요’로 분석된다. ‘내뺐-’이 모음어미인 ‘-있-’과 통합될 때 생기는 형태음운론적 변동에 대해서는 이혁화, 「‘버라-’의 방언형과 분포」, 『방언학』, 2(한국방언학회, 2005)를 참조할 수 있다.

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

한편 해요체, 해체의 비격식체 등분의 어미들은 친밀한 상대를 대상으로 사용되고 그 등분의 단계가 격식체 어미와 다른 기준으로 설정된다는 점에서 격식체 어미와 구별된다. 즉 등분의 영역 측면에서 해요체는 하이소체와 하소체를 포괄하고, 해체는 하계체와 해라체를 포괄한다는 면에서 비격식체는 격식체와 구분된다. 또한 비격식체의 어미들은 (1)과 같은 특정 구문의 형성에 참여하지 못한다는 점에서도 격식체 어미들과는 성격이 다른 것으로 이해된다.

각각의 등분에 해당하는 종결어미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격식체 어미들 중에서 하이소체 종결어미로는 ‘-니니다(평서), -니니까(의문), -(으)이소(명령), -(으)입시다(청유),’ 하소체는 ‘-요/소(평서), -요/소(의문), -(으)소(명령), -(으)비시다(청유),’ 하계체는 ‘-네, -는가/고, -게, -세,’ 해라체는 ‘-는다/니다/다/라, -나/노/가/고, -어라, -자’ 등의 어미가 쓰이고 있다. 또한 ‘-어’ 및 ‘-어요’로 대표되는 해체와 해요체의 비격식체 어미들도 사용된다. 이들 중 몇몇 특징적인 사실을 지적하면 다음과 같다. 중앙어에서 하소체의 등분으로만 쓰이는 ‘-니니다’는 경북 서부방언에서 하소체뿐만 아니라 하이소체의 등분으로도 사용된다. 하소체는 ‘여보(소), 당신’ 등의 호격어와 함께 쓰이는데, 주체 높임의 선어말어미 ‘-(으)시-’가 결합된 명령문에서는 ‘-시오’ 대신 ‘-시오’가 주로 사용된다. 하계체의 어미들은 어머니, 숙모 등의 존속에게도 쓰이며, 일반적인 경상 방언과 달리 의문사가 있는 설명의문문에도 ‘-는가’가 사용된다. 이러한 현상은 해라체 의문형 어미 ‘-나’의 경우에도 확인되는데, 중부 방언의 영향에 따른 경북 서부방언의 특징적인 현상으로 이해할 수 있다. 비격식체 어미 중에서 ‘-라’는 해라체 어미 ‘-다’의 이형태가 아니라, 지정사 뒤에서 실현되는 해체의 어미 ‘-어’의 이형태로 파악된다. 마찬가지로 ‘-라요’ 또한, 지정사 뒤에서 실현되는 해요체의 어미 ‘-어요’의 이형태로 파악된다.

#### 참고문헌

강신항, 「안동방언의 서술법과 의문법」, 『언어학』 3, 한국언어학회, 1978, 9~27쪽.  
 고영근, 「현대국어의 준비법에 대한 연구」, 『어학연구』 10-2, 서울대학교 어학연구소, 1974, 66-91쪽.

김정수, 「높임법의 등분」. 『말』 21,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 1996, 1~16쪽.

김태엽, 『경북말의 높임법 연구』. 서울: 태학사, 1996.

민원식, 「문경말의 어미구조에 대한 통시적 연구」. 충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1994.

서정목, 「한국어 청자 대우 등급의 형태론적 해석(1)」. 『국어학』 17, 국어학회, 1988, 97~151쪽.

서정수, 『존대법의 연구』. 서울: 한신문화사, 1984.

안귀남, 「서북경북방언의 문장종결조사 ‘어」. 『문학과 언어』 26, 문학과언어학회, 2004, 17~48쪽.

안귀남, 「방언에서의 청자존대법 연구」. 『국어학』 47, 국어학회, 2006, 449~544쪽.

이기갑, 『국어방언문법』. 서울: 태학사, 2003.

이기백, 「경상북도의 방언 구획」. 『동서문화』 3, 계명대학교 동서문화연구소, 1969, 183~217쪽.

이동화, 「서주지역어의 종결어미 연구」. 『영남어문학』 13, 영남어문학회, 1985, 173~185쪽.

이상규, 「경북 방언의 경어법」. 『새국어생활』 1-3, 국립국어연구원, 1991, 59~72쪽.

이상규, 『경북 방언 사전』. 서울: 태학사, 2000.

이익섭, 「국어 경어법의 체계화 문제」. 『국어학』 2, 국어학회, 1974, 39~64쪽.

이익섭·채완, 『국어문법론강의』. 서울: 학연사, 1999.

이혁화, 「무주·영동·김천 방언의 음운론적 대비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05.

이혁화, 「버리·(棄)의 방언형과 분포」. 『방언학』 2, 한국방언학회, 2005, 355~380쪽.

이혁화, 「경북 서부방언의 종결어미 ‘어어」. 『한국어학』 37, 한국어학회, 2007, 335~360쪽.

임지룡, 「안동방언의 청자대우법」. 『방언학과 국어학』. 서울: 태학사, 1998, 461~484쪽.

전인득, 「경북 상주방언의 활용어미 연구」. 영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79.

정인상, 「동남방언」. 『문법 연구와 자료』. 서울: 태학사, 1998, 931~954쪽.

조옥현, 「문경 방언 동사류의 형태론적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3.

천시권, 「경북지방의 방언 구획」. 『어문학』 13, 한국어문학회, 1965, 1~12쪽.

최명옥, 『경북동해안방언연구』. 경산: 영남대학교 출판부, 1980.

최명옥, 「경상도의 방언구획 시론」. 『우리말의 연구』. 서울: 우골탑, 1994, 861~892쪽.

한국정신문화연구원(편), 『한국구비문학대계』 7~8(상주편). 서울: 고려원, 1983.

한국정신문화연구원(편), 『한국구비문학대계』 7~15(구미·선산편 1), 7~16(구미·선산편 2). 서울: 고려원, 1987.

한길, 『국어 종결어미 연구』. 춘천: 강원대학교 출판부, 1991.

한길, 『현대 우리말의 마침씨끝 연구』. 서울: 역락, 2004.

국문 요약

경북 방언 중에서 문경, 상주, 김천, 구미 지역을 포괄하는 경북 서부방언의 상대경어법 등분 체계에 대한 핵심 쟁점은 하이소체와 하소체의 구분, 그리고 격식체와 비격식체의 구분이라는 2가지 문제로 압축할 수 있다. 여타의 경북 방언과 달리 경북 서부방언은 하이소체와 하소체가 구분되어야 한다. 각각의 문장 유형에 따른 종결어미가 빈칸 없이 모두 존재하며, 두 등분이 사용되는 상대가 분명하게 구분되기 때문이다. 또한 비격식체로 다루어지는 해체와 해요체 역시, 격식체의 등분에 일대일로 대응되는 것이 아니라 2등분 이상에 걸쳐 있기 때문에 격식체와 구분되는 별도의 등분으로 설정된다.

격식체 어미들 중에서 하이소체 종결어미로는 ‘-비니다(평서), -비니까(의문), -(으)이소(명령), -(으)입시다(청유),’ 하소체는 ‘-요/소(평서), -요/소(의문), -(으)소(명령), -(으)비시다(청유),’ 하계체는 ‘-네, -는가/고, -게, -세,’ 해라체는 ‘-는다/나다/다/라, -나/노/가/고, -어라, -자’ 등의 어미가 쓰이고 있다. 또한 ‘어’ 및 ‘어요’로 대표되는 해체와 해요체의 비격식체 어미들도 사용된다. 이러한 종결어미들의 목록으로 구성되는 경북 서부방언의 상대경어법 체계는 3등분의 체계로 기술되는 여타의 경북 방언과 성격이 다르다는 점에서 중요한 방언 특징으로 기술될 수 있을 것이다.

● 투고일 : 2007. 10. 15.

● 심사완료일 : 2007. 11. 28.

● 주제어(keyword) : 경북 서부방언(west Gyeongbuk dialect), 상대경어법(honorific system for hearer), 등분(degree), 격식체와 비격식체(formal and informal style), 종결어미(sentence final ending), 이형태(allomorph).